

2020년 11월 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서기관 유재형(2515)

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반 반장 이제용(044-201-2531), 사무관 이용진(2537)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제공: 11월 2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(2020.11.2.)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에 따르면 국내 야생 조류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H5N8형으로, 최근 일본·네덜란드·이스라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.
- 이스라엘에서는 10월 12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(닭)에서 같은 날 발생하였고, 네덜란드의 경우, 10월 17일 야생조류에서 검출 후 12일 뒤인 10월 29일 가금농장(닭)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.
 - 일본의 경우, 10월 24일 홋카이도에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.
- 국내에서도 최근 경향을 보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후 20일 내에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하였었고, 11월부터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에, 현재 상황은 특히 엄중하고 위험하다.

□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전국 철새도래지 99개소(103개소 중 자체 점검중인 제주도 4개소 제외)와 거점소독시설* 16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(10.27~10.29)하였다.

* 축산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의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소독시설

○ 철새도래지에 대한 점검 결과 일일 소독차량은 383대, 인원은 491명이 투입되어 소독을 실시중이었으며, 소독약 살포량이 미흡한 철새도래지는 22개소로 나타났다.

-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도 철새도래지 내에서 산책·낙시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다수 적발되었다.

○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도 일부 시설에서 '온도 제어 장치 미설치', '고압 분무기 미비치', '불충분한 소독 실시'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.

○ 농식품부는 시도별 및 시군별 철새도래지·거점소독시설 관리상 미흡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청하였다.

□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,

○ 소독차·살수차·軍제독차와 광역방제기, 드론을 총 동원하여 장소에 따라 체계적·전략적으로 소독중이라고 밝혔다.

- 철새도래지 인근도로와 마을·농장 진입로는 소독차·살수차·
軍제독차를 이용해 소독하고, 철새도래지 및 주변은 소독차
(분사 범위 30m)와 광역방제기(150m),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
곳은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소독중이다.
-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11월 2일 현재, 살수차 24대, 軍제독차
16대, 소독차 211대, 광역방제기 81대, 드론 103대를 조류
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소독에 투입하고 있다.
-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일, 경기·강원지역
양돈농장 1,245호(매일 실시중)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,
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.
-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구제역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
양돈농장과 위탁·임대 양돈농장에 대한 구제역 방역실태
점검을 실시(10.26~)하고 있고,
- 11월 1일부터 소·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(~
'21.2월, 4개월간)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"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점
인근 10개 철새도래지를 「AI 특별관리지역」으로 설정하여
집중관리하고 있고, 그 외에도 오리·산란계 등 과거 사례에
비추어 봤을 때 감염에 취약했던 축종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중"
이라고 설명하며,

- “특히 주말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관계자들은 농장 주변의 생석회 벨트를 다시한번 점검하여, 추가로 도포하고, 축사 내·외부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·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